

농림부 축산시책 방향

—축산관계 단체장회의에서 발표

농림부 축산국은 지난 2월 6일 한국 종축개량협회,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한정협회 등 전국의 21개 축산관계 단체장을 불러 축산시책과 관련 단체에 요망 사항을 시달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축산시책

가. 축산현황

○우리 나라의 축산은 부업형태에서 상업화내지 기업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1960년도의 88,983M/T의 육류소비가 1973년에는 240%가 증가된 213,354M/T로 증가하여 가축의 증식은 시급한 과제이다.

○1981년도에는 국민소득이 1,000 \$ 수준에 이르게 되어 육류는 1973년 대비 204% 증가한 435,748M/T로 증가되어 계란이 60억 개 우유가 324,391M/T로 수요가 증가된다.

나. 1973년도 축산물 생산 및 증식목표

	한우	우유	돼지	닭
사육두수	천두	천두	천두	천수
사육두수	1,378	44.8	1,542	29,937
축산물생산	48,182	101,495	103,754	닭고기 61,418% 계란 2,988배 단계
국민 1인당 소요량	1,467g	2,913g	3,159g	닭고기 1,870g 계란 91개

다. 73년도 주요시책

(1) 역우(役牛)로 부터 육용우로 정책전환

- uros 도살 체증 전환으로 비육사업보급
- 육우특장의 개발조성
- 비육사업의 확대

(2) 한우증식기반 확대

- 육성우의 부락단위로 집중입식, 인공수정 강화로
증식증대

○암소 도살제한 연장(5~7세연장 검토)

(3) 돼지 양산체제 확립으로 수출증대

○수출규격돈 계약생산으로 양산체제 확립.

○합작투자 유치로 수출시장 확보

○수출업체의 양돈장 경영 의무화

(4) 양계산업의 안정화

○양계경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조절생산

○불량종계의 자율적 생산규제

○국산종계의 개량화 확대보급

(5) 우유소비확대와 유통개선

○분유도입의 계속적 중단으로 낙농가 보호

○가공장 증설로 처리능력 확대

○위생처리와 검사강화로 신선제품보급

○원유의 등급별 가격별 실시로 품질개선

(6) 초지와 사료작물의 생산확대

○초지의 계속적 확대조성으로 사료 자급도 증진

○사료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국내 사료자원 개발확대로 도입체제

나. 73년도 주요사업

사업별	사업량	소요자금	비고
한우육성	42,410	4,400	마을단위 집중 지원
한우비육	6,150	1,065	소비지근교의 비육기술 있는 자에게 지원
인공수정	160,000	134	한우, 유우, 돼지에 실시
유우도입 (IDA)	1,700	170	IDA 유우 입식에 필요한 축사시설지원
종축개량사업	두(首) 5,800	24	종축등록 및 능력검정
초지조성	3,150ha	504	초지조성종자 비료 개간 비지원
사료수급조절	204.4%	180	사료가격 및 유통조절
축산물소비 확대홍보	—	8	축산물의 소비 인식제고
가축방역 및 위생	—	369	예방주사 및 검진 진료사업

<계속-101 page로>

기업 양돈의 타당성

정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임신확인 후 방목장에 넣는 것이 좋다.

4. 맷는 말

돈육대일수출전망은 일본시장사정으로 볼 때 무척이나 밝은 편이나 국내 여건이 여기에 부합하여 주지 못한다면 하등 실효를 거둘 수 없으리라고 본다.

국내적으로 우선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 확대조성이라 하겠다. 기업규모의 양돈이 한국양돈의 주종을 이루워야 할 때가 온 것이며 또 이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물론 당장 종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재의 여건에서 급격한 생산기반 확대는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겠으나 그럴수록 정부의 양돈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상당수의 종돈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고서는 급격한 생산증대는 기하기 어렵고 또 이를 국내 품종개량을 위해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사료원료자원의 원활한 공급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양돈이 착수되기 이전에 양돈기술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술없는 생산기업이 일찌기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중공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절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하여도 기술개발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생산기술과 합리적인 경영기술이 가미된 기초 위에서 우리의 양돈생산이 확대되는 날 우리는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비교적 의회 가득울이 높은 돈육수출전망을 더욱 밝게 굳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의 이 논고가 한국양돈 발전에 일말에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 필자의 양돈관계 논문

1. 양돈기술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농공병진(농어촌개발공사기관지) 1971. 12월

2. 일본의 양돈현황, 농어촌개발 972. 6월호

3. 돈육대일수출전망과 그 개발대책

(농어촌개발 1972. 12월호)

<117페이지에서 계속>

또한 농림부는 각 축산단체에게 단체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능률을 극대화시켜 각단체가 축산발전의 근간이 되어 줄것을 당부하였다. 그 요지는,

1) 공통유사목적을 가진 단체의 통합추진 : 현재 존속하고 있는 축산관계 법인중 공통유사, 목적을 가진 단체는 사업의 중복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사법인은 대동단결하여 적극 통합을 추진 법인의 운영을 혁신하여 줄 것.

2) 단체의 임직원과 회원의 결속

회원과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 목적을 위해 총매진하여 줄 것.

3) 단체운영의 합리화

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모든 회원은 운영경비조달을 확고히 보장하여 수입불실로 인한 법인

활동의 위축을 막고 건전한 수입원으로 단체가 존립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실효거 양

단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기하여 실적을 최대한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할 것.

5) 정부의 축산진흥시책 구현화와 선도적 사명 달성

단체는 정부축산진흥정책의 방향과 그 시책을 숙지하고 당면 한국농촌의 근대화가 축산진흥 없이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축산인들로 하여금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조치(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종축개량 및 보급, 사육관리 향상에 의한 증식 도모, 사료 개발, 축산경영의 기계화,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 기술개발과 정보교환, 이용가공개발과 유통, 축산물 수출증대, 자체사업 PR과 국가축산 진흥시책의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